

# 안전한 수학여행·체험학습, '강진푸소'가 답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수학 여행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이들의 배움과 추억의 기회가 위축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한 가운데, 전남 강진군의 농촌체험형 프로그램 ‘강진푸소(FU-SO)’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전국 학교 수학여행의 모범 사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푸소(FU-SO)는 ‘필링-업(Feeling-Up)’과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촌에 와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가에서 하루나 이틀 밤을 보내며 시골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전국 유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부터 학생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단단히 다졌다. 2015년부터 2026년 5월말 현재까지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강진 푸소를 다녀갔다.

2026년 연말까지 35개 학교 5,200명의 학생이 예약하며 대부분의 일정이 마감됐다. 원하는 일정을 선점하기 위해 2027년, 2028년까지 25개 학교 5,220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다.

예약학교의 95%가 광주전남권 학교로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신도중학교(부산 해운대구), 청운중학교(서울 종로구) 등 강진과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학교도 매년 강진 푸소를 찾는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최근 2년 새 전국적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급격하게 위축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강진푸소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강진군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설계하여 인솔교사의 책임부담을 함께 나눠 가진다는 것에 있다.

/전문재 기자



학생들이 강진 푸소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농사 숙박과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 무안군,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무안군은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소별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와 개선의 지가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업소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경영관리 ▲마케팅관리 ▲위생·식재료 관리 ▲메뉴개발 등이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와 외식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컨설팅을 통해 업소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업소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서용운 기자

## 목포문학관, 청년 인턴 3명 모집



목포 문학관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문학관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주관하는 '2026 문학관 인턴십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청년 인턴 3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문학인들에게 문학관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문학관 운영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문학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인턴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목포문학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소장자료 아카이빙, SNS 홍보 관리, 전시 및 행사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접수는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며, 국립한국문학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성태 기자

## 함평군, '제13회 함평군수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성료

전남 함평군은 “제13회 함평군수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함평야구장, 전남야구장, 함평-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순천시, 여수시, 광주 광산구, 보령시, 울주군 등 전국 12개 팀 240여 명이 참가해 야구 종목의 저변 확대와 공무원 동호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대회는 함평군체육회(회장 박종희)가 주최하고 함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진석)가 주관, 함평군이 후원했다.

주요 대회 결과로는 개인 시상과 단체 시상이 진행됐으며, 결승전에서는 순천시청이 예산군청을 2대 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예산군청, 공동 3위는 광주 광산구청과 해남군청이 각각 올랐으며,

마이너리그 우승은 여수시청이 차지했다.

김진석 함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함평을 찾아주신 공무원 야구 동호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야구를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우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 영암군, 노인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영암군이 지난 22일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2026년 노인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단과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김은진 감사가 맡아 노인 인권 보호

를 위한 사례 중심 교육과 현장 실천 방안 등을 안내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와 상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삶이 이어지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돌봄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노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 녹색연합, 신안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

지난 23일 자은면 고장리 일원에서 환경단체 녹색연합과 도시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와 자원 순환을 결합한 모니터링 및 재활용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해양쓰레기 수거에 그치지 않고, 참가한 시민들이 선별한 플라스틱 폐부표는 세척 과정을 거쳐 전남 구례군 소재 반달곰썬터 곰마루에 전달된다. 바다를 오염시키던 애물단지가 반달가슴곰들의 지루함을 달래고 야생성을 자극하는 '행동풍부화' 물품으로 뜻깊게 재탄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신안군 해안에 밀려든 폐부표 수거에 동참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태 기자

가고싶은 멜로우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멜로우 시티 Jangseong